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 1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 2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맘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 3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 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뉘 능히 끊을소냐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의

- 1 날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 2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 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음악 소리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 3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9월 7일(토) 기도 담당 : 이윤익 집사

이른아침예배

인도 : 김명자 목사

예배를여는말 인 도 자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같 이

찬 송 90장 다 같 이

기 도 김행형 집사

성 경 봉 독 민수기 23:1~12 인 도 자

찬 양 새벽찬양대

설 교 『발람의 신탁에 담긴 뜻』 이상학 목사

기 도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다 같 이

찬 송 303장 다 같 이

축 도 설 교 자

<민수기 묵상 본문 및 설교 제목>

요 일	본 문	제 목
9월 5일(목)	민 22:1-20	더하지도 덜하지도 말고 뜻대로만...
9월 6일(금)	민 23:1-12	발람의 신탁에 담긴 뜻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19년 9월 6일 (금)

사랑의 하나님!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새벽을 깨우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이 저희들 삶의 자리에 권세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하게, 힘있게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132년 유구한 역사를 통하여 새문안교회를 인도해 오시고,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케 하시고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당을 드나드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며, 이 예배당을 통하여 구원받는 백성의 수가 날로 더하게 하시며, 이 민족의 어두운 현실을 밝히는 등대되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보완, 보수해야 할 부분들도 잘 해결되게 하시고, 부족한 건축현금도 채워지게 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헌당케 하옵소서.

하나님! 이상학 담임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맡기신 목회적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며, 모든 부교역자들과 선교사님들도 소명을 따라 충성되이 목회하게 하옵소서. 세우신 장로님들로 하여금 교회의 모든 현안들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풀어 나가실 수 있는 지혜를 더하옵소서. 새문안의 다음 세대를 이어갈 교회학교를 부흥케 하시며, 청년들의 취업과 결혼을 위한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옵시며, 연로하신 성도들의 노후가 복되게 하옵소서. 중한 병으로, 혹은 각종 삶의 짐으로 지쳐 있는 믿음의 권속들을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아온 주의 백성들의 간구에 응답하셔서, 간구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는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일제 식민지, 민족동란을 거치면서 피폐해진 조국에 경제적 부흥을 허락하시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가 했지만, 작금의 조국의 현실은 방자하기 그지없는 백성들의 민낯을 보게 합니다. 이 현실을 어찌해야할지.....하나님 저희들은 무력합니다. 불쌍하게 여기시고 고쳐주옵소서. 저희들의 자손들이 대한민국 백성임을 자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민족 6만여 교회가, 참담한 조국의 현실이 우리의 영적 책임임을 인식하여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